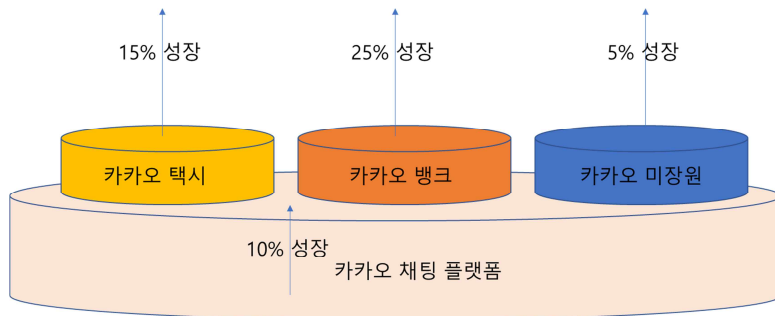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강양석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힌트를 드려 여러분과 티키타카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시장에서 특정 제품의 실질 성장세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모든 산업과 서비스들이 플랫폼화를 겪게 될 텐데요. 바로 이때 플랫폼의 성장세와 플랫폼 내 특정 서비스나 제품의 성장세를 적절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 카카오톡 채팅 플랫폼 위에 카카오 택시, 카카오 뱅크 그리고 카카오 미장원 서비스가 올라가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특정 기간동안 카카오 채팅 플랫폼 전체가 10% 성장 할 때 동기간 카카오 택시 15%, 뱅크 25%, 미장원이 5% 성장했다고 한다면, 과연 카카오톡 미장원은 자체적으로 얼마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카카오톡 미장원은 가만히만 있어도 10%는 성장했는데 5%밖에 성장하지 못했으므로 오히려 자체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5% 빼기 10%해서, 마이너스(-) 5%가 카카오톡 미장원의 자체 성장세라고 봐야 맞을까요?

대략적으로는 그렇다고 볼수도 있지만, 사실 이번 3차시 문제는 이보다 한단계 깊은 내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미장원이 플랫폼 성장세 만큼만 성장했다면 얼마만큼 성장했을지를 (성장세가 아닌) 성장치로 산출해 내고, 그 성장치가 실제 동기간 카카오톡 미장원이 5%만큼 성장한 정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봐야하는 것입니다. 즉, 성장세와 성장치를 구분하는 섬세한 계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세와 성장치의 구분>

- 성장세: 특정 기간 내 특정 값의 변화율
: 예) (전) 100 → (후) 200 이면, 100% 성장
- 성장치: 특정 기간 내 특정 값의 증가분
: 예) (전) 100 → (후) 200이면, 100만큼 성장

단순히, 성장세에서 성장세를 빼는 방식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언뜻 맞아보일수도 있지만, 이는 각 성장세 %값을 만들어내는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막 바로 뺄셈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대로 카카오톡 미장원은 실질적으로 -5%의 성장세를 가졌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사업을 철수하는게 낫다라는 결론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장세와 성장치를 계산상에서는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가지 더 염두하셔야 하는 것은 '플랫폼 내 특정 서비스 자체 성장세와 플랫폼 전체 성장세 두 값 간 비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두 비율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두 성장치간 값의 비율(%)>

- 만약 특정 서비스가 100만큼 성장했을 때, 플랫폼 전체의 힘에 의한 성장치와 해당 서비스 자체 힘에 의한 성장치가 각각 30과 70이라면,
- 이때, 두 힘간 비율은 30% : 70%

초기 답변자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답변에 착안하여 추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더 티키타카! 해보아요^^

강양석 드림